

# 粵北土話 變音의 변화과정 고찰

모정열\*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粵北土話의 變音 유형
  - III. 粵北土話 變音의 역사적 변천
  - IV. 주변 방언과의 관련성
  - V. 맺는 말
- 

## I. 들어가는 말

‘變音’이란 ‘本音’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글자 본래의 음이 ‘本音’이라면 ‘變音’은 글자 본래의 음이 변화하면서 일정한 의미작용 혹은 어법작용을 하게 되는 ‘本音’의 변화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漢語方言에서의 變音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지칭하는 느낌(小稱), 친애하는 감정(愛稱) 혹은 경시하는 감정(鄙稱)’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指小變音(중국어로는 小稱變音)<sup>1)</sup>이라 칭하기도 한다. 變音은 방언에 따라 ‘小稱’, ‘愛稱’, ‘鄙稱’ 등과 같은 의미작용 외에도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는 등의 어법 작용을 하기도 한다. 變音의 어음형식은 성조의 변화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방언에 따라서는 성조의 변화와 더불어 운모의 형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때로는 소위 ‘兒化’ 혹은 ‘兒尾’<sup>2)</sup>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北京

---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 1) ‘指小’는 漢語의 ‘小稱’ 혹은 ‘愛稱’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로는 ‘diminutive’ 혹은 ‘hypocoristic’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兒’음이 독립적인 음절로 발음되지 못하고, 앞 음절과 결합(융화)되어 앞 음절 발음의 구성성분이 되는 경우를 보통 ‘兒化’라 한다. 普通話 중의 花兒[xuar<sup>55</sup>], 歌兒[kv<sup>55</sup>] 등이 그와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漢語方言 중에는 ‘兒’음이 앞 음절과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兒化’ 현상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語 중의 兒化는 이러한 변음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廣東省 북부에는 漢語方言의 분류 문제에 있어 아직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지역 토속방언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中國語言地圖集》(1987)에서는 이 지역 방언을 ‘韶州土話’라 명명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粵北土話’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莊初昇(2004)에서는 粵北土話가 분포한 廣東省 북부 24개 지역을 음운특성에 근거해 雄州片(烏迳, 雄州, 百順, 長江 등 4개 지역), 韶州片(白沙, 臘石, 周田, 上窯, 石陂, 犁市, 梅村, 石塘, 桂頭, 長來 등 11개 지역), 連州片(黃圃, 飯塘, 三溪, 星子, 保安, 連州, 西岸, 豐陽, 三江 등 9개 지역)의 3개 方言片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雄州片과 韶州片에는 보편적으로 變音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粵北土話에서 나타나는 變音은 普通話에서 나타나는 ‘兒化’ 현상과 같이 단순하지 않고, 운모의 중간 혹은 끝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성조를 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변음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粵北土話의 변음들을 유형별로 재차 세분화한 후 각 유형간의 유기적 관계와 형성 원인을 분석하여 粵北土話 변음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진일보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문 중 사용된 자료는 필자가 2000년 9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개월여 간 5개 지역(韶關西河, 南雄雄州, 南雄百順, 連州附城, 曲江犁市)의 실제 방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그 외 中山大 莊初升교수가 제공해 준 준 자료(仁化石塘, 連州豐陽, 乳源桂頭, 曲江白沙, 曲江犁市방언의 字音 자료), 《樂昌土話研究》(張雙慶 主編, 廈門大學出版社, 1998년)에서 제시한 字音表(樂昌長來, 飯塘, 北鄉, 黃圃, 三溪) 그리고 莊初升(2004) 《粵北土話音韻研究》, 李冬香(2009) 〈曲江區大村土話小稱變音的變異研究〉, 邵慧君(1995) 〈韶關本城話中的變音〉, 莊初升 林立芳(2000) 〈曲江縣白沙鎮大村土話的小稱變音〉, 伍巍(2003) 〈廣東曲江縣龍歸土話的小稱〉 등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兒尾’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湖南省 安鄉방언에서 ‘兒’은 앞 음절과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인 (경성)음절로 발음되는 ‘兒尾’이다. 鳥兒 liau<sup>21</sup>·a, 缸兒 kaŋ<sup>55</sup>·ŋa(應雨田 〈湖南安鄉方言的兒化〉, 《方言》1990年 第1期: 52-59).

## II. 粵北土話의 變音 유형

粵北土話 각 지역 방언의 변음 현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유형: 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현상

粵北土話 분포 지역 남부의 일부 방언 중에는 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현상이 나타난다. 犁市방언<sup>3)</sup>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鎌len<sup>35</sup> 表 / lɛʔɛ<sup>21</sup>刀, 察ts'a<sup>11</sup>觀 / ts'aʔa<sup>21</sup>響, 蓋kuo<sup>33</sup>住 / kuoʔo<sup>21</sup>獲, 春ts'an<sup>53</sup>天 / ts'a'n<sup>21</sup>鷄, 鵝gou<sup>35</sup>天 / goʔu<sup>21</sup>白, 錢ts'e'i<sup>35</sup>姓 / ts'e'i<sup>21</sup>賺. 이 때 성조값은 발음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으로 인해 약간의 휴지(休止)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犁市방언 중의 入聲 성조값과 유사하다.<sup>4)</sup> 莊初升(2004)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이외에도 白沙, 上窯, 臘石 등 방언 중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白沙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婆p'oʔ<sup>45</sup>, 帕毛巾p'oʔo<sup>23</sup>, 路luʔu<sup>45</sup>, 蓋kuʔu<sup>23</sup>, 指tsuʔi<sup>23</sup>, 椒tsiaʔa<sup>23</sup>, 前灶ts'ieʔe<sup>45</sup>, 日ŋiʔi<sup>45</sup>, 戚ts'aʔe<sup>45</sup>, 俗ts'eʔu<sup>45</sup> 등. 특이한 점은 白沙, 臘石 등 방언의 경우 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이 삽입된 이후 전체 음절의 성조값이 中古 성모의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白沙방언의 경우 中古 清聲母字와 濁聲母(全濁聲母, 次濁聲母)上聲字는 變音 후 23(2ʔ23) 정도의 성조값이 되며<sup>5)</sup>, 그 외 中古 濁聲母字는 變音 후 45(4ʔ45) 정도의 성조값이 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帶toʔo<sup>23</sup>(清去), 桃t'aʔu<sup>45</sup>(全濁平), 艇tiaʔŋ<sup>23</sup>(全濁上), 卵leʔŋ<sup>23</sup>(次濁上), 月ŋeʔe<sup>45</sup>(次濁入).<sup>7)</sup>

3) 犁市방언의 예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와 莊初升교수가 제공해 준 자료를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4) 犁市방언의 성조 체계는 다음과 같다. 陰平53, 陽平35, 陰上23(223), 陽上11, 陰去33, 陽去32, 入聲21.

5) 濁聲母 上聲字는 변음형식이 아닌 경우는 방언 내의 清聲母 去聲字와 합류되어 陰去로 발음된다.

6) 白沙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陰平13, 陽平21, 上聲24, 陰去44, 陽去22, 陰入5, 陽入3.

7) 莊初升(2004:248)에 의하면 上窯, 臘石 등 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즉

## (2) 유형: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현상

粵北土話 분포지역 중남부의 일부 방언에는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현상이 나타난다. 石塘, 桂頭, 梅村 등의 방언이 그러한데, 石塘, 桂頭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蓋	春	錢	茄	菌	帽	鴨
石塘	kua <sup>45</sup> <sub>住</sub>	ts'uæŋ <sup>44</sup> <sub>天</sub>	ts'iq <sup>322</sup> <sub>姓</sub>	k'or <sup>32</sup>	k'uæŋ <sup>32</sup>	mau <sup>32</sup>	ou <sup>32</sup>
	kua <sup>32</sup> <sub>獲</sub>	ts'uæŋ <sup>32</sup> <sub>雞</sub>	ts'iq <sup>32</sup> <sub>賺</sub>				
桂頭	kvu <sup>44</sup> <sub>住</sub>	ts'aŋ <sup>51</sup> <sub>天</sub>	ts'en <sup>45</sup> <sub>姓</sub>	k'œy <sup>74</sup>	k'vaŋ <sup>324</sup>	bor <sup>4</sup>	ia <sup>4</sup>
	kvu <sup>4</sup> <sub>獲</sub>	ts'aŋ <sup>4</sup> <sub>雞</sub>	ts'en <sup>4</sup> <sub>賺</sub>		k'vaŋ <sup>4</sup>		

이 때 變音의 성조값은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값과 유사하지만<sup>9)</sup>, 음절 끝에 성문파열음을 동반하면서 축급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의 (1)유형 즉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의 경우는 白沙방언에서처럼 變音의 성조값이 성모의 古音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성문파열음이 음절 끝에 나타나는 (2)유형의 경우는 變音의 성조값이 항상 한 가지로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현상은 粵北土話 이외의 기타 漢語方言 중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晉방언에 속하는 山西省의 太原, 長治, 大同 등 방언

中古 清聲母字와 濁聲母上聲字는 變音 후 23(2723) 정도의 성조값이 되며, 그 외 中古 濁聲母字는 變音 후 45(4745) 정도의 성조값이 된다고 하였다. 莊初升(2004)에서는 白沙의 예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서술에서 臘石방언의 변음 발음을 예시한 경우가 있어 함께 적어본다. 臘石: 蓋kuŋ<sup>23</sup><sub>獲</sub>~, 鵝go<sup>45</sup><sub>白</sub>~.

8) 石塘, 桂頭방언의 예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와 莊初升교수가 제공해 준 준 자료를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梅村자료는 莊初升(2004)에서 제시된 예가 적어 나열하지 않았다. 梅村방언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蓋kuŋ<sup>44</sup><sub>住</sub>/kuŋ<sup>4</sup><sub>獲</sub>~, 錢ts'iq<sup>322</sup><sub>姓</sub>~/ts'iq<sup>32</sup><sub>賺</sub>~.

9) 石塘방언과 桂頭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石塘방언: 陰平44, 陽平322, 上聲324, 去聲45, 入聲42, 桂頭방언: 陰平51, 陽平45, 陰上324, 陽上21, 陰去44, 陽去33.

에서는 舒聲字가 입성 성조로 발음되면서 성문과열음이 동반되는 指小變音 현상이 나타난다.<sup>10)</sup>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娶ts'əʔ<sup>媳婦子</sup>, 相ciəʔ<sup>眼</sup>, 喉yuəʔ<sup>嚨</sup>(이상 太原방언) 泡p'əʔ<sup>茶</sup>, 蔗tsəʔ, 股kuəʔ<sup>屍</sup>(이상 長治방언) 蔗tsaʔ, 土t'uəʔ<sup>黃</sup>, 姑ku<sup>小子</sup> / kuəʔ<sup>丈夫的妹妹</sup>(이상 大同방언). 潘悟云(1995:120)에서는 吳방언에 속한 青田방언에도 '外甥儿hov<sup>6</sup>sāŋ'ŋ<sup>2</sup>, 娘舅niāŋ<sup>2</sup>dziəu<sup>4</sup>' 등처럼 음절 말미에 성문과열음이 동반되는 변음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3) 유형: 방언 성조 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變音 현상

莊初升(2004:245)에 의하면 粵北土話 분포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한 長江방언에서는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높은 상승조의 성조로 표현되는 變音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沙so↗, 茄k'io↗, 指tsɿ↗, 菌k'uŋ↗, 棍kuŋ↗, 帽mau↗, 鴨ɔ↗, 鹿lu↗, 篩se<sup>44</sup>-<sup>米</sup>/se↗<sup>米</sup>, 頭t'eu<sup>22</sup>-<sup>髮</sup>/t'eu↗<sup>熱</sup> 등. 張雙慶(1998:53-127)의 자료에 의하면 粵北土話 지역 남부에 위치한 長來방언에도 유사한 變音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지역의 變音은 상승조가 아닌 하강조라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禾vu↘, 魚ŋɔ↘, 篩fi<sup>31</sup>-<sup>米</sup>/fi↘<sup>米</sup>, 弟t'ei<sup>33</sup>-<sup>徒</sup>/t'i↘<sup>老</sup>, 票p'æi↘, 法fu↘, 扇fäi↘, 刷ts'u<sup>12</sup>-<sup>印</sup>/tʃ'au↘<sup>牙</sup>, 門mæŋ↘, 狀ts'an<sup>33</sup>-<sup>无</sup>/ts'an↘<sup>告</sup> 등. 李如龍, 張雙慶(1992:12)의 조사에 따르면 贛방언에 속하는 江西省 宜豐방언에도 長江방언에서와 같은 상승조의 變音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構ciæu↗, 坪p'an↗, 鵝<sup>石</sup>ŋɔ↗, 芽暴ŋa↗, 担扁tan↗, 胡須u↗, 橙ts'an↗ 등. 이와 같은 방언들 중에 나타나는 變音현상은 방언의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으로 변음현상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유형: 성문과열음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 현상

粵北土話 분포 지역의 동북부 韶關市內의 西河방언에서는 상술한 (1)유형과

10) 溫端政 〈試論山西晉語的入聲〉, 《山西方言研究》, 山西人民出版社, 1989年:18-19.

(3) 유형의 變音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西河방언 일부 상용자들은 본래의 성조를 잃어버리고 높게 상승하는 상승조의 성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운모의 중간에는 때때로 성문파열음이 동반되기도 한다. 높게 상승하는 상승조의 성조로 발음될 때 성조값은 대체로 西河방언 성조 체계 중의 上聲[35]과 유사하다. 그러나 성조의 마지막 끝 부분이 上聲의 성조값보다 더 높아. 굳이 숫자로 표기하자면 [36] 혹은 [37] 정도의 성조값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자들의 성조값은 본지인의 어감으로도 방언 내 上聲[35]의 성조값과는 다르며, 동일한 음운 위치의 다른 글자들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鋸 ki↗ ≠ 句 ki<sup>55</sup> ≠ 舉 ki<sup>35</sup>, 架 ka↗ ≠ 嫁 ka<sup>55</sup> ≠ 假真假 ka<sup>35</sup>, 免 thu↗ ≠ 吐 thu<sup>55</sup> ≠ 土 thu<sup>35</sup>, 椒 tsiu↗ ≠ 焦 tsiu<sup>12</sup> ≠ 酒 tsiu<sup>35</sup>, 錢 ts<sup>h</sup>en↗ ≠ 前 ts<sup>h</sup>en<sup>21</sup> ≠ 淺 ts<sup>h</sup>en<sup>35</sup>, 門 man↗ ≠ 聞 man<sup>21</sup> ≠ 敏 man<sup>35</sup>, 蠅 ian↗ ≠ 迎 ian<sup>21</sup> ≠ 飲 ian<sup>35</sup>, 裙 khuan↗ ≠ 群 khuan<sup>21</sup> ≠ 捆 khuan<sup>35</sup>, 帳 tseq↗ ≠ 賬 tseq<sup>55</sup> ≠ 長生~ tseq<sup>35</sup>, 粽 tsaj↗ ≠ 衆 tsaj<sup>55</sup> ≠ 總 tsaj<sup>35</sup>. 이와 같은 글자들이 빠르게 발음될 때는 운모 중간에 나타나는 성문파열음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천천히 좀 더 느리게 발음될 때는 예외 없이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 [ʔ]이 삽입된다.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할 때도 상승조의 성조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승하는 폭이 다소 작아져 대략 [23] 혹은 [34] 정도의 음가로 발음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眼淚 ŋa<sup>55</sup> lɔʔi↗, 姐妹 tsai<sup>35</sup> mɔʔi↗, 巷 hɔʔŋ↗, 銀 ŋaʔan↗, 圍裙 vai<sup>21</sup> khuaʔan↗, 魚 ŋiʔi↗, 小麥 siu<sup>35</sup> meʔe↗, 菊花 k<sup>h</sup>ɔʔɔ↗ fa<sup>12</sup>, 舅爺 k<sup>h</sup>iu<sup>33</sup> iaʔa↗, 書桌 ji<sup>12</sup> tsoʔu↗, 褪色 thɔi<sup>55</sup> seʔi↗, 筆 paʔi↗.<sup>11)</sup>

11) 西河방언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운모에 모음韻尾나 鼻音韻尾가 있는 경우는 주요모음과 운미 사이에 성문파열음을 삽입하여 발음한다. 단, 鼻音韻尾 앞에 성문파열음을 삽입하는 경우 鼻音韻尾 앞에는 주요모음이 다시 한 번 중복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鵝 ŋɔʔu↗, 剪刀 tsen<sup>35</sup> taʔu↗, 眼淚 ŋa<sup>55</sup> lɔʔi↗, 姐妹 tsai<sup>35</sup> mɔʔi↗, 巷 hɔʔŋ↗, 銀 ŋaʔan↗, 鷄公公鷄 kei<sup>12</sup> kaʔaŋ↗, 圍裙 vai<sup>21</sup> khuaʔan↗, 算盤 sɔŋ<sup>55</sup> p<sup>h</sup>ɔʔŋ↗. (2) 단모음으로 구성된 운모의 경우는 운모 뒤에 성문파열음을 삽입한 후 (단모음) 운모를 다시 한 번 중복하여 발음한다. 魚 ŋiʔi↗, 小麥 siu<sup>35</sup> meʔe↗, 菊花 k<sup>h</sup>ɔʔɔ↗ fa<sup>12</sup>, 鄉下 heŋ<sup>12</sup> haʔa↗. (3) ‘韻頭(介音)+주요모음(韻腹)’으로 구성된 운모의 경우는 주요모음 뒤에 성문파열음을 삽입한 후 주요모음을

## (5) 유형: 방언 내의 성조와 동일한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變音 현상

粵北土話 분포지역 동북부에 위치한 烏徑방언이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烏徑방언 중의 指小變音은 성조의 변화로 표현되는데, 변화된 성조의 성조값이 방언 내의 陰平 성조값과 동일하다.<sup>12)</sup> 따라서 變音현상인지 아니면 방언 본래의 성조인지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방언 성조의 일반적 변화 규칙에 비추어 해당 글자의 독음이 변화 규칙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조해 보아 變音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次濁聲母 上聲字인 '領'자는 烏徑방언에서 두 가지 성조로 발음된다. ① [liẽ<sup>12</sup>]('領東西'에서의 '領', 陰去), ② [liẽ<sup>42</sup>]('衫領'에서의 '領', 陰平). 烏徑방언에서 中古 濁聲母 上聲字를 陰去로 발음하는 현상은 烏徑방언 성조 체계 내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濁聲母 上聲字를 陰平으로 발음하는 현상은 성조 변화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領'자의 陰平 성조는 방언 성조체계의 역사적 변화 결과가 아닌 變音 현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烏徑방언에서 陰平으로 발음하는 글자들 중 變音현상이라고 판단되는 글자들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梨li<sup>42</sup>, 茄tɕio<sup>42</sup>, 磨mo<sup>42</sup>, 鏗ts'o<sup>42</sup>, 芽ŋoœ<sup>42</sup>, 轄tɕiæ<sup>42</sup>, 豆t'ɛ<sup>42</sup> 등. 烏徑방언 지역에서 멀지 않은 雄州방언의 變音현상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雄州방언의 變音은 中古 성모 조건의 다름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sup>14)</sup> ① 淸聲母 入聲字를 제외한 淸聲母字는 [11]로 발음되는데, 성조값 [11]은 방언 내 陽平의 성조값과 동일하다. ② 淸聲母 入聲字와 濁聲母字는 [42]로 발음되는

다시 한 번 중복하여 발음한다. 黃瓜 vɔŋ21 kua?a↗, 電話 tʰen33 ua?a↗, 舅爺 kʰiu33 ia?a↗, 晝 ua?a↗. (4) 入聲韻字의 경우는 운미의 성문과열음이 없어지고, 운미의 중간에 위의 (1), (2), (3) 규칙에 의거 성문과열음을 삽입한다. 今日 kian12 ŋiʔi↗, 書桌 ji12 tsoʔu↗, 褪色 tʰɕi55 seʔi↗, 筆 paʔi↗, 碟 tʰiʔi↗, 親戚 tɕʰan12 tɕʰeʔi↗.

- 12) 烏徑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陰平42, 陽平21, 上聲24, 陰去12, 陽去5, 변음 ①21, 변음②42  
 13) 예는 張雙慶 萬波 〈南雄(烏徑)方言音系特点〉(《方言》1996年第4期: 290-297) 중의 예를 인용하였다.  
 14) 雄州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陰平44, 陽平11, 上聲24, 陰去33, 陽去42, 入聲5.

데, 성조값 [42]는 방언 내 陽去의 성조값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沙(清平)sa<sup>41</sup>, 袴(清去)fu<sup>41</sup>, 塔(清入)t'ai<sup>42</sup>, 茄(濁平)teio<sup>42</sup>, 丈(濁上)tsɔŋ<sup>42</sup>, 領(濁上)liɑŋ<sup>42</sup>, 截(濁入)tsai<sup>42</sup> 등. 雄州방언의 경우도 성조로 표현되는 變音 형식이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變音 현상인지 아니면 방언 본래의 성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Ⅲ. 粵北土話 變音의 역사적 변천

變音은 漢語의 일부 남방방언에서는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데, 陳忠敏(1992:72-76)에서는 “성문과열음이 있는 變音 현상은 남방 일부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指小變音 현상의 초기 형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상술한 5종류의 변음형식 중 (1)유형(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과 (2)유형(운모의 끝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이 성문과열음이 있는 변음형식이다. 이 두 유형 변음형식의 형성 시기를 비교해 보면 (2)유형보다는 (1)유형이 더 오래된 형식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유형 중 白沙, 周田, 上窯, 臘石 등 방언의 변음은 中古 성모 조건 즉 中古 성모의 淸濁(무성음과 유성음)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변음 형식의 형성 시기를 적어도 ‘濁音淸化 시기’(全濁聲母가 무성음 성모로 변화되는 시기) 이전까지 소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유형에는 (1)유형과 같이 中古 성모의 淸濁 여부(혹은 그 외 변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음운조건)에 따라 변음형식이 分化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유형은 (1)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후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유형 내에서도 두 가지의 변음형식이 한 가지로 통합되어가는 경향이 존재한다. 白沙방언의 字音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부 글자들에서 이미 두 가지 변음형식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虫(全濁平)=葱(淸平)tsaŋ<sup>45</sup>, 彈子~(全濁去)=炭(淸去)t'ɔŋ<sup>45</sup> 등. 같은 유형에 속한 犁市방언의 경우에도 이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변음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犁市방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모의 중간에서 발음되던 성문 파열음이 음



절 끝으로 옮겨가 발음되는 현상도 존재한다. 즉 (1)유형에서 (2)유형으로의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茄k'æŋ<sup>21</sup> / k'æŋ<sup>21</sup>, 譜p'uŋ<sup>21</sup> / p'uŋ<sup>21</sup>, 帽mauŋ<sup>21</sup> / mauŋ<sup>21</sup>, 岸ŋoəŋ<sup>21</sup> / ŋoəŋ<sup>21</sup>, 信<sub>書</sub>saŋ<sup>21</sup> / saŋ<sup>21</sup>, 墨maŋ<sup>21</sup> / maiŋ<sup>21</sup>, 責zaŋ<sup>21</sup> / zaŋ<sup>21</sup> 등. 예의 글자들은 모두 성문파열음이 운모의 중간 혹은 음절 끝에 오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莊初昇(2004:255)의 犁市 방언 자료를 보더라도 똑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sup>15)</sup>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발음인①	발음인②
熱頭太陽	gei <sup>2</sup> tiaŋ <sup>45</sup>	gei <sup>2</sup> tiaŋ <sup>45</sup>
碑石墓碑	pai <sup>21</sup> sieŋ <sup>45</sup>	pai <sup>21</sup> sieŋ <sup>45</sup>
草坪	ts'au <sup>45</sup> pieŋ <sup>45</sup>	ts'au <sup>45</sup> pieŋ <sup>45</sup> / ts'au <sup>45</sup> pier <sup>5</sup>
熱凳白天	gei <sup>2</sup> taŋ <sup>23</sup>	gei <sup>2</sup> taŋ <sup>23</sup> / gei <sup>2</sup> taŋ <sup>2</sup>
時候	si <sup>53</sup> hiaŋ <sup>45</sup>	si <sup>53</sup> hiaŋ <sup>45</sup> / si <sup>53</sup> hiar <sup>5</sup>
鑊蓋鍋蓋	vou <sup>2</sup> kuoŋ <sup>23</sup>	vou <sup>2</sup> kuor <sup>2</sup>
担杆扁担	ta <sup>55</sup> kuor <sup>23</sup>	ta <sup>55</sup> kuor <sup>23</sup>
鷄公公鷄	kei <sup>21</sup> keŋ <sup>23</sup>	kei <sup>21</sup> keŋ <sup>2</sup>

발음인②의 발음 중 ‘坪, 凳, 候’ 등의 글자들은 성문파열음이 운모의 중간 혹은 음절 끝에 오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蓋, 杆, 公’ 등의 글자들은 성문파열음이 이미 음절 끝에서만 발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유형 즉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變音 현상’은 대체로 (1)유형 혹은 (2)유형의 운모 형식에서 성문파열음이 생략되고 성조만 그대로 남은 상태의 변음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粵北土話 지역 남부 曲江縣 龍歸방언의 변음 현상은 기본적으로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1)유형이지만(中古清聲母字 [3?23], 濁聲母字 [4?34]), 일부 2음절 혹은 다음절 단어의 자연스러운 발화 중에서는 성문파열음이 사라진다고 한다(이 때의 성조값은 중간의 성문파열음

15) 莊初昇(2004)에서의 犁市방언 자료는 필자의 자료와 글자의 성조값에서 차이가 나지만 변음현상의 변화 과정과 경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용하였다.

만 사라질 뿐 동일한 성조값을 유지한다: 中古 清聲母字[323], 濁聲母字 [434]).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이 때 [323], [434] 등의 성조값은 龍歸방언 성조 체계 내에 없는 변음 성조이다.

筆 piŋ <sup>323</sup>	毛筆 mau <sup>42</sup> piŋ <sup>323</sup> / mau <sup>42</sup> pi <sup>323</sup>
信 saʔan <sup>323</sup>	寫信 sie <sup>24</sup> saʔan <sup>323</sup> / sie <sup>24</sup> san <sup>323</sup>
鴿 kaʔa <sup>323</sup>	白鴿 p'a <sup>2</sup> kaʔa <sup>323</sup> / p'a <sup>2</sup> ka <sup>323</sup>
樹 jiŋ <sup>434</sup>	杉樹 ju <sup>21</sup> jiŋ <sup>434</sup> / ju <sup>21</sup> ji <sup>434</sup>
路 lu <sup>2u</sup> <sup>434</sup>	山路 faŋ <sup>21</sup> lu <sup>2u</sup> <sup>434</sup> / faŋ <sup>21</sup> lu <sup>434</sup>
石 fieŋe <sup>434</sup>	馬卵石 mu <sup>44</sup> loŋ <sup>44</sup> fieŋe <sup>434</sup> / mu <sup>44</sup> loŋ <sup>44</sup> jie <sup>434</sup>

龍歸방언과 같은 曲江縣에 위치한 大村방언의 경우도 변음형식 [4245]가 청년층의 발음에서는 중간성문과열음이 생략된 채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17)</sup>

粵北土話 지역 중남부 石陂방언의 변음은 기본적으로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3)유형의 변음형식((33))인데, 일부 中古 清入字의 경우는 음절 끝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변음형식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때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든 그렇지 않든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竹tʃ<sup>33</sup> / tʃ<sup>23</sup>, 谷k<sup>33</sup> / k<sup>23</sup>, 戚ts'ei<sup>33</sup> / ts'ei<sup>23</sup>, 粟s<sup>33</sup> / s<sup>23</sup>, 約iou<sup>33</sup> / iou<sup>23</sup>, 塔t'a<sup>33</sup> / t'a<sup>23</sup> 등. 石陂방언의 이와 같은 변음형식은 (2)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3)유형은 (1)유형 혹은 (2)유형 중의 성문과열음이 생략되면서 변음 성조만 그대로 남은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래의 변음 성조가 상승조(上升調)였다면 상승조가 될 것이고(長江방언 등), 하강조(下降調)였다면 하강조가 될 것이며(長來방언 등), 강승조(降升調)였다면 강승조가 될 것이다(龍歸방언).

(4)유형 즉 '성문과열음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 현상'은 (1)유형 혹은 (2)유형이 (3)유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

16) 伍巍 〈廣東曲江縣龍歸土話的小稱〉, 《方言》2003年 第1期:54-60.

17) 李冬香 〈曲江區大村土話小稱變音的變異研究〉, 《文化遺產》2009年第3期:145-146.

단계에 있는 변음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운모의 중간 혹은 음절 끝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받음하던 방식에서 성문과열음이 탈락되고 성조 변음만 남게 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앞서 예시한 龍歸방언이나 石陂방언도 일정 부분 (4)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龍歸방언이나 石陂방언은 기본적으로 각각 유형(1)과 유형(3)의 변음형식을 가진 방언이지만, 龍歸방언은 일부 다음절 단어 내에서 (3)유형이 나타나고, 石陂방언은 일부 清入字에서 (2)유형의 흔적이 나타난다. 따라서 龍歸방언 변음은 (1)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 石陂방언 변음은 (2)유형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절 (4)유형에서 예시한 西河방언의 변음현상도 龍歸방언과 마찬가지로 (1)유형의 변음형식이 (3)유형의 변음형식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변음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西河방언이 龍歸방언과 다른 점은 龍歸방언에서는 (3)유형의 변음현상이 일부 다음절 단어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西河방언에서는 변음현상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글자에서 (1)유형과 (3)유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西河방언의 변음현상은 龍歸방언의 변음현상보다 더욱 진전된 변화의 형태를 보이는 변음형식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역으로 西河방언이나 龍歸방언의 변음현상이 (3)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본래 없던 성문과열음이 운모 중에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음운조건이나 발음상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건이나 원리를 찾을 수 없고, 또 어음의 변화는 발음을 보다 쉽고 수월하게 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보편적 변화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西河방언의 변음현상은 粵北土話 변음의 변화과정 중 (1)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변음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방언은 ‘(1)유형 → (4)유형 → (3)유형’의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石陂방언의 경우는 ‘(2)유형 → (4)유형 → (3)유형’과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고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주변방언 특히 犁市방언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2)유형은 본래 (1)유형으로부터 변화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므로 石陂방언은 과거 ‘(1)유형 → (2)유형 → (4)유형 → (3)유형’의 변화를 겪어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粵北土話 변음의 최초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유형은 (2)유형을 거쳐 변화하기도 하지만, 石陂방언의 경우처럼 (2)유형을 거치지 않고 바로 (4)

유형과 (3)유형으로 변화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5)유형과 같이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로 합류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5)유형 ‘방언 내의 성조와 동일한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變音 현상’은 (3)유형 즉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으로 표현되는 變音 현상’이 진일보 변화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烏逕방언과 雄州방언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방언 내에서는 변음의 성조값이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음현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방언 내의 변음현상이 약화되어 변음이 가져오는 의미상(어감상)의 변화 혹은 어법 작용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모호해 지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粵北土話 변음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 변화과정①: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4)유형) →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형식이 사라지고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變音으로 통합((3)유형) →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로 합류((5)유형)

#### 변화과정②: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2)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4)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형식이 사라지고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變音으로 통합((3)유형) →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로 합류((5)유형)

그런데 (1)유형의 변음형식은 다시 변음 성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와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경우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음 성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中古 성모의 淸/濁(무성음과 유성음)이 分化의 조건이 된다.

白沙, 腊石, 龍歸 등 방언의 경우 中古 淸聲母字는 [2ʔ23] 혹은 [3ʔ23]으로 발음되고, 濁聲母字는 [4ʔ45] 혹은 [4ʔ34]로 발음된다.<sup>18)</sup> 周田, 上窯, 向陽, 犁市 등 방언에서는 구분 없이 한 가지로만 나타난다.

	白沙	腊石	龍歸	周田	上窯	向陽	犁市
淸聲母字	2ʔ23	2ʔ23	3ʔ23	21ʔ12	4ʔ45	4ʔ45	2ʔ23
濁聲母字	4ʔ45	4ʔ45	4ʔ34				

이와 같은 분포 상황으로 볼 때 (1)유형의 변음은 본래 中古 성모의 淸/濁을 조건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가 후대에 한 가지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白沙방언과 上窯방언을 비교해 보면 白沙방언에서는 서로 다른 성조값을 가진 變音字들이 上窯방언에서는 同音字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白沙방언: 蟲ts'v<sup>42</sup>n<sup>45</sup> ≠ 葱ts'v<sup>2ʔ</sup>n<sup>23</sup>, 彈t'ø<sup>42</sup>ŋ<sup>45</sup> ≠ 炭t'ø<sup>2ʔ</sup>ŋ<sup>23</sup>, 上窯방언: 蟲 = 葱 ts'a<sup>42</sup>ŋ<sup>45</sup>, 彈 = 炭 t'ø<sup>42</sup>ŋ<sup>45</sup>.<sup>19)</sup> 이와 같이 한 가지로 통합된 (1)유형의 변음은 다시 (2)유형이나 (3)유형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3)유형과 (5)유형 일부 방언의 변음 형식을 보면 변음 성조가 여전히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雄州, 烏逕, 北鄉, 長來, 周田 등 방언의 경우가 그러하다.

	雄州	北鄉	烏逕	長來	周田
淸聲母字	11	31	21	12	12
濁聲母字	42	33	43	↘	3

그렇다면 이들 방언의 경우는 中古 성모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18) 白沙, 腊石, 龍歸 등 방언 중 濁聲母 上聲字의 성조는 현재 淸聲母 去聲字와 통합되어 陰去로 발음된다. 이 때문에 濁聲母 上聲字의 변음형식도 淸聲母字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濁聲母 上聲字와 淸聲母 去聲字의 성조 통합은 후대에 주변방언 혹은 북방방언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언 자료는 犁市를 제외하고 莊初升(2004:41-78)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 莊初升 《粵北土話音韻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年：257.

(1)유형 변음형식이 통합의 과정 없이 성문과열음이 탈락되면서 그대로 현재까지 두 개의 변음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즉 雄州, 烏逕, 北鄉, 長來, 周田방언의 경우는 (2)유형이나 (3)유형의 과정을 처치지 않고 (1)유형에서 성문과열음이 탈락된 후 바로 (5)유형으로 발전한 것일까? 하지만 성조건 합류관계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雄州, 烏逕, 北鄉, 長來, 周田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雄州: 陰平 44	陽平 11	上聲 24	陰去 33	陽去 42	入聲 5	변음① 11	변음② 42	
烏逕: 陰平 43	陽平 21	上聲 24	陰去 12	陽去 5		변음① 21	변음② 42	
北鄉: 陰平 212	陽平 42	上聲 55	去聲 33	入聲 31		변음① 31	변음② 33	
長來: 陰平 31	陽平 51	上聲 24	去聲 33	入聲 12		변음① 12	변음② ↘	
周田: 陰平 33	陽平 11	上聲 35	陰去 41	陽去 31	陰入 5	陽入 3	변음① 12	변음② 3

우선 雄州방언을 보면 中古 淸聲母字의 변음(변음①)은 방언 내 陽平 성조와 합류되었고, 中古 濁聲母字의 변음(변음②)은 陽去와 합류되었다. 그런데 雄州방언의 濁聲母 入聲字들도 濁聲母字의 변음과 마찬가지로 모두 陽去로 합류되었다(현재의 入聲 성조는 淸聲母 入聲字들의 성조이다). 즉 濁聲母 入聲字의 현 성조와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가 일치한다(모두 陽去로 합류).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 雄州방언 入聲이 陰入(中古 淸聲母 入聲字의 入聲 성조)과 陽入(中古 濁聲母 入聲字의 入聲 성조)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값이 陽入과 같아졌고, 후에 함께 陽去로 합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값이 陽入과 같아진 이유는 당시 陽入字의 운모 발음과 濁聲母字의 변음형식이 똑같이 음절 끝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성조값의 합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陽入字의 운모 발음과 濁聲母字의 변음 발음에서 음절 끝 성문과열음이 모두 탈락되면서 함께 陽去로 합류되었을 것이다. 반면 淸聲母字의 변음은 濁聲母字의 변음보다 먼저 성문과열음이 탈락되면서 入聲과의 합류 없이 바로 舒聲化되었고, 후에 陽平 성조와 합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淸聲母 入聲字는 현재에도 입성 성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雄州방언의 변음은 (1)유형에서 (5)유형으로 직접 변화했다기 보다는 淸聲母字의 변음과 濁聲

母字의 변음이 각기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하여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런데 雄州, 烏逕, 周田 등 방언의 변음 현상을 관찰해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값이 淸聲母字의 변음 성조값보다 높이가 높다는 점이고, 둘째는 淸聲母字의 변음이 濁聲母字의 변음보다 먼저 舒聲化 된다는 점이다. 淸聲母字와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값 높이는 앞서 나열한 예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淸聲母字의 변음이 濁聲母字의 변음보다 먼저 舒聲化 된다는 점은 이들 방언지역 내 연령대별 발음의 차이와 성조간 합류관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李冬香, 莊初聲(2009:472-494)에 의하면 曲江縣 大村 방언의 변음은 [223](淸聲母字의 변음)과 [4245](濁聲母字의 변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淸聲母字의 변음 [223]은 30세 이하 연령층의 발음에서 이미 성문과열음이 사라졌지만, 濁聲母字의 변음 [4245]는 12세 이하 아이들의 발음에서도 25% 이상 성문과열음이 남아있다고 한다. 앞서 설명한 雄州방언의 경우도 淸聲母字의 변음이 濁聲母字의 변음보다 먼저 성문과열음이 탈락되면서 舒聲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淸聲母字의 변음은 먼저 舒聲化되었기 때문에 入聲 성조와 합류되지 않고 후에 자신과 성조값이 유사한 陽平 성조와 합류되었을 것이다. 반면 淸聲母字의 변음이 舒聲化된 이후에도 성문과열음을 간직하고 있던 濁聲母字의 변음은 성문과열음이 음절 끝으로 이동하면서 陽入과 성조값이 같아졌고, 후에 방언 운모 체계 내의 성문과열음이 모두 탈락되면서 陽入과 함께 陽去로 합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周田방언의 경우도 淸聲母字의 변음(변음①)은 현재 성문과열음이 탈락되고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 [12]로 발음되지만, 濁聲母字의 변음(변음②)은 입성운미(성문과열음)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陽入과 합류되었다. 烏逕방언의 경우는 현재 入聲 성조가 소실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淸聲母字의 변음은 陽平과 합류되었고, 濁聲母字의 변음은 일부 入聲字와 함께 陰平으로 합류되었다.<sup>20)</sup> 北鄉방언이나 長來방언은 中古 성모에 따른 변음의 分化 조건이 불분명하다. 이는 주변 강세방언의 영향으로 변음 성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변음 성조의 일부는 두 방언에서 모두 入聲과 합류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

20) 烏逕방언의 入聲字는 中古 성모 淸濁의 구분 없이 일부는 陰平으로 일부는 陽去로 합류되었다. 庄初升 《粵北土話音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年:227-228.

실들을 종합해 볼 때 雄州, 烏逕, 周田 등 방언 변음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형식이 둘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1)유형의 초기) 상대적으로 성조값의 높이가 낮은 변음(주로 淸聲母字의 변음)이 먼저 舒聲化되어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으로 발전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방언 성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의 舒聲 성조와 합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상대적으로 성조값의 높이가 높은 변음(주로 濁聲母字의 변음)은 성문과열음이 음절 끝으로 옮겨가면서 방언 내 入聲 성조와 합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방언 음운체계 내의 성문과열음이 모두 탈락하게 되면서 入聲 성조와 합류된 濁聲母字의 변음은 또다시 방언 성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을 가진 舒聲 성조와 합류하게 된다. 그렇다면 粵北土話 변음의 변화과정은 앞서 언급한 변화과정①과 변화과정② 이외에 雄州, 烏逕, 周田 등 방언을 포괄할 수 있는 다음의 변화과정③을 설정해 볼 수 있다.

#### 변화과정③:

운모의 중간에 성문과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단 中古 淸聲母字의 변음과 中古 濁聲母字의 변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 상태 → 淸聲母字의 변음은 먼저 舒聲化되어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으로 변화하거나((3)유형) 혹은 더 나아가 방언 성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의 舒聲 성조와 합류 → 濁聲母字의 변음은 성문과열음이 음절 끝으로 옮겨가면서 방언 내 入聲 성조와 합류 → 방언 음운체계 내의 성문과열음이 모두 탈락되면서 濁聲母字의 변음도 방언 성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의 舒聲 성조와 합류

漢語方言 성조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中古 동일 성조의 글자들 중 濁聲母字의 성조값(일반적으로 陽調(陽平, 陽上, 陽去, 陽入)의 성조값)이 낮고, 淸聲母字의 성조값(일반적으로 陰調(陰平, 陰上, 陰去, 陰入)의 성조값)이 높다는 것이다. 유성음 성모는 발음할 때 성대를 진동시켜야하기 때문에 음절 전체를 발음하는데 힘의 소비가 더 많게 되고, 그로 인해 유성음 성모 음절이 무성음 성모 음절보다 성조의 높이가 상대적으로(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것이다.<sup>21)</sup> 또한 入聲韻尾를 동반한 入聲韻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濁聲母入聲字가 淸聲母入聲字보다 먼저 舒聲



化된다고 하였다.<sup>22)</sup> 하지만 粵北土話 변음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한어 방언의 일반적인 변화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淸聲母字의 변음 성조값은 濁聲母字의 변음 성조값보다 높이가 낮고, 또 淸聲母字의 변음이 濁聲母字의 변음보다 먼저 舒聲化된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中古 入聲韻의 舒聲化 과정과 粵北土話 변음의 舒聲化 과정 모두 中古 淸聲母字이든 濁聲母字이든 성조값의 높이가 낮은 발음의 글자들이 먼저 舒聲化 된다는 점이다.

#### IV. 주변 방언과의 관련성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粵北土話와 본래 같은 방언이었다고 여겨지고 있는 주변 湘南土話나 桂北平話<sup>23)</sup>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변음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粵北土話의 변음 현상이 古代로부터 이어져

21) 한어방언 중에는 中古 동일 성조의 글자들 중 무성음 성모 글자들의 성조값이 낮고, 유성음 성모 글자들의 성조값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王福堂(2005)에 의하면 방언 내 모종의 변화(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 성조의 성조값이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등의 변화)로 인해 성조체계 내 각 성조의 높낮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에서 [55]로 혹은 [42]에서 [21]로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각 성조의 높낮이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조의 굴곡 유형(즉 調型)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王福堂《漢語方言語音的演變和層次》, 語文出版社, 2005년:217-220쪽.

22) 辛世彪《東南方言聲調比較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4년:160.

23) 湘南土話는 湖南省 남부 지역의 오랜 토속어인데, 주로 東安, 雙牌, 新田, 寧遠, 道縣, 藍山, 江永, 江華, 資興, 永興, 桂東, 嘉禾, 桂陽, 臨武, 宜章, 汝城, 信道, 冷水灘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平話는 주로 廣西省의 철로, 하천등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교외와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리적 요인과 언어적 특성에 의거해) 다시 桂北平話와 桂南平話로 나눈다. 桂北平話는 주로 桂林市의 교외지역과 臨桂, 靈川, 永福, 龍勝, 富川, 鍾山, 賀縣, 融安, 融水, 羅城, 柳江, 柳城 등지에 분포되어 있고, 桂南平話는 주로 賓陽, 邕寧, 橫縣, 貴港, 上林, 馬山 등의 현(縣)과 南寧市 교외 및 左江, 右江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湘南土話와 桂北平話는 粵北土話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공통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 현재 학계에서는 粵北土話, 湘南土話, 桂北平話를 하나의 방언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桂南平話의 성격에 관해서는 마땅히 粵방언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은 방언 고유의 특성이 아니고 인근 강세방언과의 관계 속에서 후대에 형성된 특성일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방언 분포 특징으로 볼 때 粵北土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방언은 粵방언 혹은 客家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粵北土話 분포지역에는 대부분 粵방언 혹은 客家방언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지역 통용어도 粵北土話가 아닌 粵방언 혹은 客家방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湖南省과 인접한 지역은 西南官話가 통용어인 경우도 있다). 粵北土話 주민들은 대부분 대외적으로는(직장 혹은 장터 등) 지역 통용어를 사용하고, 집 안 혹은 마을 단위에서만 粵北土話를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변 강세방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粵방언이나 客家방언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은 변음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粵北土話의 주요 분포 지역인 廣東省과 인접한 江西省 중북부의 贛방언 지역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앞서 제2절 粵北土話의 변음 유형 중 (3)유형에서 언급했듯이 江西省 宜豐 贛방언에는 長江방언과 유사한 상승조의 변음현상이 나타난다. 같은 贛방언에 속하는 江西省 黎川방언에서도 글자의 성조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 기능 혹은 어법 기능을 표현하는 변음 현상이 나타난다. 顏森(1993:11)에 의하면 黎川방언의 변음현상은 ①오름조의 변음(이하 升變音)과 ②내림조의 변음(이하 降變音) 그리고 ③높게 발음되는 변음(이하 高變音) 3가지로 나누어진다. 升變音은 黎川방언 성조체계 내 陽平[35]의 성조값과 동일하고, 降變音은 陰去[53]의 성조값과 동일하다. 高變音은 黎川방언 陽入[5]의 성조값과 동일하다. 3가지 변음 형식 중 降變音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일반적인 指小變音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작은 것을 지칭하는 느낌(小稱), 친애하는 감정(愛稱) 혹은 경시하는 감정(鄙稱)’ 등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24)</sup> 아래 예 중 밑줄 그어진 글자가 변음현상이 나타나는 글자이다. 성조값 표기 중 ‘/’ 왼쪽은 글자 본래의 성조값이고 ‘/’ 오른 쪽은 변화된 변음 성조값이다.

升變音: 老長 lou<sup>44/35</sup> ts'ɔŋ<sup>35</sup>, 冰冷 peŋ<sup>22/35</sup> laŋ<sup>44</sup>

24) 顏森 《黎川方言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년:11-17. 顏森 〈黎川方言의 兒尾和仔尾〉，《方言》1989年 第1期:60-64.

降變音: 蝦公 ha<sup>44</sup> kuŋ<sup>22/53</sup>, 簷老鼠 iam<sup>35</sup> lo<sup>44</sup> ei<sup>44/53</sup>(蝙蝠)

高變音: 兵卒 piŋ<sup>22</sup> tsoi<sup>3/5</sup>, 戲面儉 hi<sup>53</sup> mien<sup>13</sup> kop<sup>3/5</sup>

黎川방언 인근의 邵武방언(福建省 서북부에 위치한 贛방언)에서는 非入聲字를 入聲 성조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張双慶 萬波(1996:1-15)에서는 邵武방언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발음 형태나 의미 기능으로 볼 때 黎川방언의 指小變音과 성격이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변음의 성조값도 黎川, 邵武 두 지역 모두 [53](降變音)으로 같다. 또한 邵武방언 부근의 南城, 光澤, 泰寧 등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논문 중의 일부 예를 옮겨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에서는 변음 성조값만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 [53], [41], [51] 등 내림조의 성조값이다.

	黎川	邵武	南城	光澤	泰寧
棗 <small>棗子</small>	tsou <sup>53</sup> ue	tsau <sup>53</sup> ə	tsou <sup>53</sup> ue	tsau <sup>41</sup> ə	tso <sup>51</sup> lɛ
剪 <small>剪刀</small>	ɬien <sup>53</sup> ne	tsien <sup>53</sup> nə	ɬien <sup>53</sup> tou	tsien <sup>41</sup> nə	kau tsan <sup>353</sup>
蚊 <small>蚊子</small>	men <sup>53</sup> ne	mən <sup>53</sup> nə	men <sup>35</sup> ni	mən <sup>41</sup> nə	mun <sup>51</sup> ts'ia

陳忠敏(1993:823)에서는 邵武방언의 入聲韻은 본래 성문과열음[?] 운미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의 指小變音 역시 성문과열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變音字와 入聲字의 성조가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후에 入聲韻 중의 성문과열음이 탈락되면서 변음형식에서도 성문과열음이 탈락되었지만 성조는 여전히 入聲과 같은 성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黎川, 邵武방언 등의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논의한 粵北土話의 변음과 분명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粵北土話의 변음 현상과 贛방언 변음 현상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좀 더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5)</sup>

25) 莊初升(2004:141)에서는 粵北土話 중 일부 知徹澄母 三等字가 [t], [t']성모로 발음되는 현상이 贛방언과 유사함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粵北土話와 贛방언의 유사성은 아마도 江西省 贛방언 주민들의 이 지역 이주, 특히 宋, 元, 明 시기 江西省의 주민들

## V. 맺는 말

粵北土話에서는 성조 혹은 운모를 변화시키는 변음현상이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粵北土話 자료와 그동안의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粵北土話 변음의 유형을 5가지로 다시 세분화한 후 유형간의 선후관계 및 형성 원인을 분석하여 粵北土話 변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음 3가지 과정으로 귀납해 보았다.

### 〈변화과정①〉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4)유형) →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형식이 사라지고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變音으로 통합((3)유형) →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로 합류((5)유형)

### 〈변화과정②〉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2)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과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變音((4)유형) → 운모의 끝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 형식이 사라지고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變音으로 통합((3)유형) → 방언 성조체계 내의 성조로 합류((5)유형)

### 〈변화과정③〉

운모의 중간에 성문파열음을 넣어 발음하는 變音((1)유형), 단 中古 淸聲母字의 변음과 中古 濁聲母字의 변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 상태 → 淸聲母字의 변음은 먼저 舒聲化되어 방언 성조체계 내에 없는 성조값의 변음으로 변화하거나((3)유형) 혹은 더 나아가 방언 성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의 舒聲 성조와 합류 → 濁聲母字의 변음은 성문파열음이 음절 끝으로 옮겨가면서 방언 내 入聲 성조와 합류 → 방언 음운체계 내의 성문파열음이 모두 탈락되면서 濁聲母字의 변음도 방언 성

이 湖南省과 湖北省(혹은 廣東省)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는 소위 ‘江西填湖廣’의 移民史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 조체계 내 유사한 성조값의 舒聲 성조와 합류

## 【參考文獻】

- 陳忠敏, 〈語音層次的定義及其鑒定的方法〉, 《歷史層次與方言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7年.
- 陳忠敏, 〈寧波方言“蝦豬鷄”類字聲調變讀及其原因〉, 《語言研究》1992年 第2期.
- 陳忠敏, 〈邵武方言入聲化字的實質〉《史語所集刊》第63本 第4分冊, 1993年.
- 鄭永輝, 〈韶關市郊石陂村語言生活的調查〉, 《方言》1998年 第1期.
- 李冬香, 〈曲江區大村土話小稱變音的變異研究〉, 《文化遺產》2009年 第3期.
- 李榮, 〈漢語方言的分區〉, 《方言》1989年 第4期.
- 李新魁等, 《廣州方言研究》, 廣東人民出版社, 1995年.
- 李如龍 張雙慶主編, 《客贛方言調查報告》, 廈門大學出版社, 1992年.
- 梁猷剛, 〈廣東省北部漢語方言的分布〉, 《方言》1985年 第2期.
- 林立芳 莊初升, 〈粵北地區漢語方言概況〉, 《方言》2000年 第2期.
- 劉綸新主編, 《客贛方言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年.
- 潘悟云, 〈溫、處方言和閩語〉, 《吳語和閩語的比較研究》, 上海教育出版社, 1995年.
- 邵慧君, 〈韶關本城話中的變音〉,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5年 第3期.
- 王福堂, 《漢語方言語音的演變和層次》, 語文出版社, 1999.
- 王福堂, 〈平話, 湘南土話和粵北土話的歸屬〉, 《方言》2001年第2期.
- 溫端政, 〈試論山西晉語的入聲〉, 《山西方言研究》, 山西人民出版社., 1989年.
- 伍巍, 〈廣東曲江縣龍歸土話的小稱〉, 《方言》2003年 第1期.
- 謝自立, 〈南雄雄州鎮方言里的促變音〉, 《中國方言學報 第一期》, 商務印書館, 2006年.
- 辛世彪, 《東南方言聲調比較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4年.
- 顏森, 《黎川方言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3年.
- 顏森, 〈黎川方言的兒尾和仔尾〉, 《方言》1989年 第1期.
- 應雨田, 〈湖南安鄉方言的兒化〉, 《方言》1990年 第1期.
- 詹伯慧 張日昇, 《粵北十縣市粵方言調查報告》, 暨南大學出版社, 1994年, 字音對照表.
- 張雙慶 主編, 《樂昌土話研究》, 廈門大學出版社, 1998年, 字音對照表.
- 張雙慶 萬波, 〈南雄(烏逕)方言音系特点〉, 《方言》1996年 第4期.

張双慶 萬波,〈從邵武方言幾個語言特點的性質看其歸屬〉,《語言研究》1996年 第1期.

鄭張尚芳,〈方言中的舒聲促化現象〉,《中國語言學報》第5期, 1995年.

莊初升,〈粵北客家方言的分布和形成〉,《韶關大學學報》1999年 第1期

莊初升,《粵北土話音韻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年.

莊初升 林立芳,〈曲江縣白沙鎮大村土話的小稱變音〉,《方言》2000年 第3期.

### 【中文提要】

文章首先根据語音形式和分化條件對粵北土話的小稱變音進行了分類, 然后全面考察了粵北土話小稱變音的具体演變過程。据分析, 我們認為粵北土話小稱變音的演變過程可以歸納為下面3種類型。

演變過程(1): 韻母中間嵌有喉塞音[ʔ]的變音 → 韻母中間嵌有喉塞音[ʔ]的變音和表現為方言聲調体系里沒有的特殊調值的變音兩種形式同時出現的變音 → 表現為方言聲調体系里沒有的特殊調值的變音 → 表現為與方言里某種聲調重合的調值的變音。

演變過程(2): 韻母中間嵌有喉塞音[ʔ]的變音 → 音節末尾帶有喉塞音[ʔ]的變音 → 音節末尾帶有喉塞音[ʔ]的變音和表現為方言聲調体系里沒有的特殊調值的變音兩種形式同時出現的變音 → 表現為方言聲調体系里沒有的特殊調值的變音 → 表現為与方言里某種聲調重合的調值的變音。

演變過程(3): 韻母中間嵌有喉塞音[ʔ]的變音, 而來自清聲母的變音和來自濁聲母的變音分別為不同的調值 → 來自清聲母的變音先舒聲化, 演變為方言聲調体系里沒有的特殊調值的變音或者進一步合流為方言聲調体系內的某種(調值類似的)舒聲調值 → 來自濁聲母的變音演變為音節末尾帶有喉塞音[ʔ]的變音, 并与入聲調值合流 → 隨着与入聲韻一起丢失喉塞成分, 來自濁聲母的變音也与方言聲調体系內的某種(調值類似的)舒聲調值合流。

**【主題語】**

变音、喉塞音、声调、粵北土話、演变

변음, 성문과열음, 성조, 월북토화, 변천

apophony, glottal stop, tone, Aboriginal Chinese dialects spoken in Northern Guangdong Province(Yuebei Tuhua), evolution

투고일: 2016. 7. 14 / 심사일: 2016. 7. 20~8. 5 / 게재확정일: 2016. 8. 15